이렇게 들었다

노사화해

"남 먼저 생각하면…"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따르니 마음 속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이나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보살은 길을 가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매우 더울 때와 비가 오는 때에 나무 그늘이나 집이 있으면 남에게 먼저 앉으라고 양보하며, 우물이 나 샘물이 있거나 타인의 물 가진 것을 보았을 경우면 남에게 먼저 마시라고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보살내계경>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시즌인 6월 초입부터 정·재계와 노동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5일 파업 중인 효성 울산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이미 총파업을 선언한 노동계가 이에 반발해 '6월 연대투쟁'을 '정권퇴진 투쟁'으로 확대할 뜻을 보여 노·사·정 관계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임금 인상 외에도 구조조정 저지, 주5일 근무제 도입, 공공의료 쟁취 등의 사회적 이슈와 입법투쟁 등을 망라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6월 한 달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향후 험난한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을 어떻게 상생의 길로 유도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장아함경〉에 기록된 교단을 발전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일곱 가지 방도는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

즉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정·재계와 노동계의 '예고된 갈등'을 슬기롭게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노사간의 상호이해에 따른 인내와 협력에 국운의 사활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도 시급한 문제이다. 〈선생자경〉과 〈시가라월육방예경〉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도리를 가르치신 부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선생자경〉에는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휴가를 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 주도록 한다"는 고용주의 도리를, 〈시가라월육방예경〉에는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주인의 물건을 아껴서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서 대해야 하며, 주인의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고용인의 도리를 가르치셨다.

오종욱 기자

목타는 국토…治水대책 찾아라

불자 세상보기

극심한 가뭄 식수난 심각

물절약·재이용 생활화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난 몇 년간을 주기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봄가뭄이 심각한 문제로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큰 충격으로 받아 들였으나, 물 부족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해갈이 된 후에는 다시 잊어버리고 지내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몇십년만의 가뭄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물부족사태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물을 물쓰듯이 하는 오늘날의 생활습성을 볼 때, 당연히 필요로 하는 용수의 사용량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공급되는 용수의 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물부족은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걱정 때문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댐건설 등이 어려운 형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물부족은 단순히 생활과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에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물은 무한정 쓸 수 있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자원으로써 관리해야 하는 경제재이다.

앞으로도 기존의 추세대로 물을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용수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부족을 해결하기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물에 관한 수요관리와 공급관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요관리는 물의 수요를 억제시키거나, 물사용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이고, 공급관리는 댐을 건설하고, 지하수 등을 개발하여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형프로젝트성 공급관리인 대규모 댐건설을 주로 운용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수량의 확보는 가능해진 반면, 흐름이 정체되고 오염원이 유입되어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여 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요즘과 같은 가뭄기에는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은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와 공급관리의 양측면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공급관리면에서 지표수를 흐르는 댐건설 등을 통한 용수량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용수원의 대부분이 하천수와 저수지인 지표수를 이용하기에 요즘과 같은 가뭄기에는 상대적으로 지하수원에 대한 개발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뭄기에만 급작스럽게 지하수개발을 위한 관정개발을 서두르기 보다는 평상시 준비된 계획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일본의 농촌지역의 개별주택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 올 적에 집주위에 빗물저장고를 만들어 저장시켜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시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환경단체 및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요관리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주위에는 아직까지도 물은 자원이라는 생각이 없고, 낭비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기에 물절약을 위한 시민운동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물에 관한 수요가 감소된다면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함께 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근원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은 물의 순환에 의하여 재사용한 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용수로서 쓰고 버려지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을 재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은 물의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건물과 공동시설 등에서 최근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중수도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용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일부 공장폐수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재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 사태는 이제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물의 공급과 함께 물의 절약과 재이용 등을 통하여 물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전자우편 : aeum ·하이텔 : 34713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 정부 중국눈치 보지마라

작년 달라이라마 방문이 정부의 사대주의적 외교정책으로 무산되었다.

종교인사를 초청하는 일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일인지 의문스럽고, 그 방한을 허용하지못하는 이유가 중국의 외교적 압력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이야 티베트망명정부가 독립운동한다고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변방인가, 속국인가? 왜 방문을 허락하지 못하는가? 이런 굴욕적인 외교는 중국의 오만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나아가 미래 한국의 외교나 국가이익에 간섭을 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티베트가 중국의 한 부분이 아님은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분명한데 아직도 옛날 황제의 제국주의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티베트인을 박해 학살하고 종교를 탄압하며 자국국민을 티베트로 이주시키는 중국은 아직도 인류보편적 평등, 자유와는 거리가 먼 나라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현정부의 사대주의적 대처와 이에따른 국민의 떨어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만한 중국의 터무니없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달라이라마 방문에 불교계는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김상계(서울 종로구 인사동)

해인사 대불조성 기금 복지불사에 썼으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조성되는 불·보살상이 입상이든 좌상이든 대형으로 만들어지는 예가 흔하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대장경을 모신 법보사찰 해인사마저 세계최대의 좌불을 조성한다니,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65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만한 돈이 있으면 불우 복지시설에 희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생존시 한 비구가 병이 들어 부처님 뵙기를 간절히 청하자, 친히 그 비구의 병문안을 갔다. 비구가 아픈 중에도 예배하자 부처님께서 "죽어서 썩어질 이 몸뚱이를 보고 예배하면 어떡하느냐?"면서 질책을 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불교는 너무 기복신앙적인 면이 강하다. 불교의 근본목적인 참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건강, 나와 가족의 행복 등을 위한 기도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불교가 이렇게 기복으로 흐르는 데에는 각 불교종단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불사 건립기금으로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는게 백번 나을 것이며, 부처님의 자비도 그럴때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런 시설을 짓도록 시주한 불자들의 공덕도 더욱 커질 것이다.

김현제(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불교의 구호손길 애타게 기다리는 몽골

불교의 나라 몽골은 근래들어 전례없는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1996년 봄에 발생했던 대화재는 몽골의 산림과 초원을 한 달간에 걸쳐 남한 면적 이상으로 초토화 시켰다. 그 후유증으로 삼림이 파괴된 땅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고체메탄이 발생하고 있다. 1999년 봄에도 심한 가뭄으로 초원의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 해 겨울 먹이부족으로 동사한 소, 양, 염소 떼가 무려 400만 마리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봄철의 가뭄에다 영하 70도까지 떨어진 수십년만의 혹한으로 600여만 마리의 가축이 동사했으니, 이는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밖에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몽골의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몽골 민족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유목민 특유의 낙천적인 심성은 현재의 경제적 난관이 어느 정도만 극복된다면 그토록 높아보이는 불신과 도덕불감증의 벽도 어느정도 허물어 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94%가 불자인 몽골. 깊은 침체와 좌절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몽골의 바로 오늘이 한국불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화급한 시점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기록(몽골 울란바토르 거주)

현대불교를 읽고

군불교 관련기사 확대 필요

321호의 '법당없는 부대 불자감소 불보듯' '군불자 복무중 개종 충격'이란 제하의 기사는 군포교의 현상황을 잘 보여준 기사였다. 하지만 군불교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을 좀더 곁들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현대불교에서도 집중적으로 군포교에 대한 현장 및 기획기사의 비중을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의 선택이 엇갈리는 군포교의 열악한 현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불교 진흥을 위해 정진하는 군법사들의 움직임과,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군포교에 매진하는 포교사들의 노고를 기사화 함으로써 그들의 원력을 선양하고 불자장병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섭(전북 장수군 장계면)

스님들 노후복지대책 시급

'승려 노후 복지 미룰 수 없다'는 주제의 기사는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 노후에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려노후복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었다. 그간 승단에서는 스님들의 노후와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개인적인 축재와 비리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일부 스님들은 노골적으로 '젊을 때 노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 사찰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재정사고가 때때로 발생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차제에 승려 노후복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론마당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인숙(경기 부천시 오정동)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서온 큰 뜻은?
직지인심 교외별전
不立文子 見性成佛에 있으며
고려말도의 반야심경 시대는 지나고 새인류 도법의 고려진도의 반야심경 여래후후오백세 2500년 불법이 도래된 지계 수복자 달마의 근본법도 진 태양
● 오본래자토 五本來茲土
● 전법구미정 傳法救迷情
● 일화개오엽 一華開五葉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천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도통군자제위 귀하를 용맹정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인 천문유초에 감추어진 오경명성과 서성명성 진법이 유성에 베일을 벗기는 경신일밤 자시와 오시에 진인두통군들에게 원방각 해인도법을 직접받아 즉시 도통하고 즉시 성불하는 이번법회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다시 없는 기회이오니 동참하시어 도통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달마의 진법을 수강받으실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진인 정진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의 비법은 새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한집에 한달마를 모시어 소원성취하소서. 한국불교달마종 총 본산 입문안내 -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종교의 정종과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자성보와 득도견성 성불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업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워 사람된 도리를 다하여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바른길의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 사찰 등록을 본 종단 달마종에 입문하시어 새천년을 이끌어갈 종교의 스승에 길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 종단의 뜻을 같이하고 만중생을 제도할 달마종에 몸을 담고자 하는 도반과 인연있는 후원자 및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제64회 진태양 진인 용맹정진으로 즉시 도통할 수있는 경신대법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말법도인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만물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세월속에서 다같이 깨어나 천년에 한번드는 1월 1일에 갑자일이 시작되는 해인법도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의 기도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6월 25일 6월 26일, 자시와 오시에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을 대자연의 천지신명과 염라대왕에 진법을 받아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국헌원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우담바라의 비밀을.. 2000년 5월 9일의 하늘의 대서사시의 광경을이 법의 소식은 萬有·形·象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욕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에 득도하시어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을 소멸하시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혼과 얼을 찾고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진인도통 일류 스승 되시고 도를 통하여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입 제 : 양력 6월25일 밤10시 ~ 6월26일 亥時에 해제
●동참금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목요일 밤 입제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동참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약사회골목입구

달 마 진인 경신 도통회장
한국불교 달마종 총 본산 약사도량 달마선원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 육임래정비법 -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출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잘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들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일의 시간만 펼쳐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점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성이 악한지 선한지, ●나에게 이익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언제부터 자도가 있게 될 것인지,
- 지요가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진사·구재사·시험사·구직사·결혼사·임신사·가정사·이주사·소송사·질병사·매매사·여행사·도난사·심인사·상면사·채용사·투자사·승부사·가격사·농경사·묘지사·기후사

등에 대해서도 즉시 똑부러지게 일아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나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방향을 떠나 그때가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장소와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무속인·스님·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양장제본·금박·1960페이지·미색용지·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일심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으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실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시(每日·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illegible]晩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산성폭으로 100M쯤의「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